

NEWS

2025년 4월 25일 금요일

광주시, 유기견 수용 '동물보호센터' 운영

▶1면 '이재명 후보'서 계속

광주와 전남의 공동 현안인 군공항 이전과 관련해서는 “충분한 협의를 바탕으로 추진하며 이전 지역이 함께 발전할 수 있게 적극 지원하겠다”고 했다.

이 후보는 이 밖에도 호남고속철도 2단계 조기 완공, 전라선 고속철도 신속 추진, 군산·새만금·북포를 잇는 서해선 고속화, 경전선 전철화 지원, 광주대구 달빛철도, 전주대구 고속도로, 새만금-포항 고속도로 전 구간 개통, 호남권 메가시티 고속도로 구축 등 광역 교통망 구축에도 공을 들이겠다고 공약했다.

전주가 2036 하계올림픽 유치를 추진하는 가운데 이를 전폭적으로 지원한다는 계획도 발표했다.

이 후보는 “호남은 위기마다 나라를 지켜온 자존의 땅”이라며 “세 번의 민주정부를 만든 것도 호남이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제는 경제부흥과 국가균형발전의 중심축으로 우뚝 서야 할 때”라며 “호남의 손을 굳게 잡고 대한민국의 대전환을 완수해 'K-이니셔티브' 시대를 열겠다”고 덧붙였다.

▶1면 '내일 호남경선'서 계속

최종 후보는 권리당원 투표 50%와 일반 국민투표 50%를 반영하며, 권역별 경선투표 결과와 일반 국민투표 결과를 합산해 마지막 경선일인 27일 수도권 대회에서 확정된다.

호남은 그동안 주요한 국민마다 민주당 지지층의 '바로연' 역할을 해 온 상징적 지역인 만큼 '표심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

더욱이 민주당의 심장부인 호남에서 당원들의 투표율이 저조하자, 각 후보들은 표심 잡기에 더욱 주력하는 모습이다.

실제 1일차 권리당원 온라인 투표율의 경우, 16~19일 진행된 총정권(11만131명)은 31.62%, 17~20일 진행된 영남권(10만299명)은 46.63%가 나왔다. 현재 진행 중인 호남권(37만1105명)은 23.29%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당 광주시장 한 관계자는 “권리당원의 투표 독려를 위해 다양한 방법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이번 경선은 권리당원들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위해 온라인 투표와 강제·자발적 ARS투표를 병행해 치러진다.

투표일이 아직 남은 만큼 권리당원 선거 인단이 적극 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할 것”이라고 말했다.

본촌동에 45억원 들여 신축 오후 6시까지 연중무휴 지역 보호·진료실 등 최첨단시설

광주시에 유기동물 보호실과 진료실, 입양상담실 등을 갖춘 '동물보호센터'의 문을 열고,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

광주시는 24일 강기정 시장과 장미선 동물보호센터장을 비롯해 김광남 광주시수 의사회장, 김동일 전남대 수의과대학 부학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북구 본촌동에 신축한 '동물보호센터 개소식'을 했다.

광주시동물보호센터는 국비를 포함해 총 사업비 45억2500만원을 투입, 지하 1층~지상 2층 대지면적 3307㎡(1000평), 건축면적 999.8㎡ 규모로 신축했다. 유기견 200마리를 수용할 수 있는 보호시설과 사무실, 미용·세탁실, 진료실, 수술실 등의 공간을 마련하는 등 동물복지 기준에 맞춘 현대적 시설을 갖췄다.

광주시동물보호센터는 신축 동물보호센터(본촌마을길 25-1)와 기존 동물보호



강기정 광주시장이 24일 북구 본촌동에 들어선 '광주시 동물보호센터 개소식'에 참석해 내빈들과 테이프커팅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광주시

센터(본촌마을길 27)를 통합해 광주시가 직접 운영한다.

신축 센터 건물에는 유기견(개)을, 기존 센터 건물에는 유기묘(고양이)를 수용한다. 광주시는 올해 노후화된 기존 센터의 시설을 개선하는 리모델링 공사를 시행할 계획이다.

센터 운영은 일반직 공무원, 수의사, 훈련사 등 5명의 직원과 사물관리 용역 9명

등 총 14명이 유기·유실 동물을 체계적으로 보호·관리하고 빠른 주인찾기와 입양 등의 절차를 진행한다.

운영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연중 무휴이며, 입양 상담은 사전예약제로 운영한다.

이번 동물보호센터 신축 개소에는 광주시와 지역주민의 상호 신뢰와 소통에 기반한 협력이 빛을 발했다. 2023년 8월 강

기정 시장이 건국동주민자치회 등 지역주민들과 직접 간담회를 진행, 10년여간 지속되어온 갈등을 마무리짓고, 동물보호센터 건립 사업을 추진할 수 있었다.

강기정 시장은 “동물보호센터는 유기동물의 보호부터 입양까지 전 과정에서 책임성을 키워 동물복지·반려문화 확산을 선도하고, 주민 삶의 질도 높아질 것”이라며 “건립한 국동 주민 등 동물보호센터 개소를 위해

노력해준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광주시는 앞으로도 반려동물도 한가족이라는 마음으로 정책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한편 광주시는 반려동물을 키우는 29만 시민을 위해 영산강 대상공원 일대 물의 보호부터 입양까지 전 과정에서 책임성을 키워 동물복지·반려문화 확산을 선도하고, 주민 삶의 질도 높아질 것”이라며 “건립한 국동 주민 등 동물보호센터 개소를 위해 장승기 기자 sky@

신안 임자면에 '청년바다마을' 조성한다

해수부 공모 선정...100억 들여 귀어인 주거 등 정착 지원

전남도는 해양수산부의 '2025년 청년바다마을 조성사업' 신규 공모에 신안군이 선정됐다고 밝혔다. 청년층의 어촌 유입과 지역 활력 회복을 위한 이번 사업에서 신안군은 우수한 입지와 실행 가능성 등을 인정받았다.

'청년 바다마을 조성사업'은 청년의 어촌 정착을 유도하고 지역사회와 조화를 이루는 지속가능한 바다마을을 조성하기 위해 도입됐다.

이번 공모는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서면평가, 현장심사, 전문가 종합심사

등 엄정한 절차를 거쳐 진행됐다. 전남도는 '청년바다마을 조성사업' 선정에 해수부에 2024년 사업설명회 이후 신안군민의 매력과 유치 필요성을 지속해서 설명하고 전문가 자문 사전컨설팅을 적극 지원했다.

신안군에서는 여러차례 어촌계와 주민설명회를 갖고 어촌계 정관 개정을 통해 청년 입주자에 대한 어업보조사업 및 임대어선 제공, 어장 사용 등 다양한 혜택을 지원할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인 결과 이번 결실을

을 봤다.

'청년바다마을'이 조성될 신안 임자면은 하우리항과 진리항을 중심으로 어촌계가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다. 청년 귀어인을 위해 사전 수요조사를 거쳐 귀어인이 가장 선호하는 주택 유형과 규모를 분석, 타운하우스를 중심으로 한 주거단지를 조성한다.

또한 커뮤니티 공간·문화 공간 등 주민공동시설은 청년 입주자뿐만 아니라 지역주민도 활용할수 있도록 공간을 조성해 청년과 지역사회가 함께 어울리는 커뮤니티 모델로 운영, 청년이 빠르게 정착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이현규 기자 gnnews1@gwangnam.co.kr

검찰, 문재인 전 대통령 뇌물수수 혐의 기소

"文, '터무니없고 황당,尹탄핵 보복 기소' 언급"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위였던 서모씨의 항공사 특혜 채용 의혹 등을 수사해온 검찰이 문 전 대통령을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2021년 12월 시민단체 고발 이후 약 3년 5개월 만이다.

전주지검은 문 전 대통령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24일 밝혔다. 또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상직(62) 전 의원의 뇌물공여 및 업무상 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문 전 대통령의 딸인 다혜씨와 사위였던 서씨에 대해서는 기소유예 처분했다.

검찰이 서울중앙지법에 공소를 제기함에 따라 문 전 대통령 등에 대한 재판 절차는 서울에서 진행된다.

검찰은 문 전 대통령이 서씨의 취업으로 그간 다혜씨 부부에 주던 생활비 지원액이 급증한 점에 주목, 문 전 대통령의 경제력 증진에 따른 뇌물공여 혐의도 포함했다. 또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상직(62) 전 의원의 뇌물공여 및 업무상 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문 전 대통령은 "터무니없고 황당한 기소"라며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에 대한 보복수 기소"라는 취지의 언급을 했다. 고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이 전했다.

연합뉴스

프란치스코 교황 장례식 내일 엄수

오늘 오후 7시까지 주문 허용

토요일인 26일(현지시간) 바티칸 성베드로 대성당과 그 주변에서 열릴 프란치스코 교황의 장례식이 엄수된다.

교황의 장례 미사는 이날 오전 10시(한국시간 오후 5시) 성베드로 광장에서 조

반니 바티스타 레 추기경단 단장이 집전하는 가운데 진행된다.

장례식에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을 비롯해 세계 정상 및 지도자, 주요 인사 등이 참석한다. 170개가 넘는 외국 사절단과 가톨릭 신자 20만명이 바티칸을 찾을 전망이다.

장례 미사 후 교황의 관은 다시 성베드

로 대성전으로 운구된 후 유언에 따라 로마의 산타 마리아 마조레 대성전에 안장될 예정이다. 장례미사 후 9일 간의 공식 애도기간 '노벤디암레스'에 돌입한다.

장례식까지 사흘 간 가톨릭 신자와 일반인들이 성베드로 대성당에 안치된 교황의 관을 찾아 조문할 수 있다. 23일은 자정까지, 24일은 오전 7시부터 자정까지, 25일은 오전 7시부터 오후 7시까지 조문이 허용된다. 조문이 끝나면 교황의 유해가 담긴 관은 봉인된다.

연합뉴스

전남 가축시장 28일부터 순차 재개장

전남도는 구제역 발생으로 지난 3월 14일부터 가축시장 폐쇄가 장기화 돼 농가 피해가 커짐에 따라 오는 28일부터 지역별로 위험도에 따라 순차적으로 재개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주의' 단계 7개 시군인 순천·담양·곡성·고흥·보성·영광·장성 가축시장이 28일 재개장한다. 다만 구제역이 발생한 영암·무안과 '심각' 단계 8개 시군(나

주·회산·장흥·강진·해남·목포·함평·신안) 소는 가축시장에서 거래할 수 없다.

다음달 5일부터는 '심각' 단계 지역 시군의 가축시장을 재개장할 계획이다. 구제역이 발생한 영암·무안의 소는 거래할 수 없다. 발생 시군인 영암·무안에 있는 가축시장 2곳은 발생지역에 위치해 있어 3km 방역대 이동제한이 모두 해제된 이후 재개장을 검토할 방침이다.

이현규 기자



'만남'에 우연이란 없습니다.

만남, 당신에 이상형!

바로연

에서 인연을 만나다.

초혼·새혼 결혼전문업체 바로緣 1644-5432/062.381.0009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자유로 173 대영빌딩 3층 (상무지구 롯데마트 옆)